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명예가 숨쉬는 곳



E. C. MYERS 단편 소설

이야기
E. C. MYERS

그림
BORG SINABAN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IY COOK





한조는 될 수 있으면 도시를 피했다. 어디를 보나 드높은 마천루가 사방을 둘러싼 도쿄의 어둠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카네자카의 고요함을 선호했다. 가끔 부친의 사업 때문에 도쿄의 인위적인 도심을 갔던 적도 있는데, 너무 밝고 분주한 느낌이었다.

한조가 마지막으로 도쿄에 방문했을 때는 거부증이 더 심해졌다... 인내심이 줄어든 때문일 수도 있다. 거리는 밀실 공포증이 일어날 정도로 더 좁아 보였고, 후미진 모퉁이, 눈에 띄지 않는 문, 열린 창문이 가득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배치한 선정적인 불빛은 더 삭막한 그림자만 드리울 뿐, 도쿄는 시끄럽고 사람으로 가득했다. 널 섹터 침공으로 이제는 달리거나 비명 지르는 사람까지 더해지니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한조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했다.

그것 말고도 그는 수년간 많은 것들을 피해 왔다. 동생 겐지를 죽였다는 후회에 휩싸여 세상과 단절한 채 유명해 지나가는 유명이나 다름없이. 그런 생활은 2년 전, 시마다 성에서 겐지가 한조에 맞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겐지는 한조의 손에 죽지 않았던 것이다.

한조는 비겁하게 다시 한번 도망쳤다. 오랫동안 도망 생활을 한 그였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조는 자신을 짓누르는 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병으로 일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는 들릴 리 없는 목소리를 한조는 더 무시할 수 없었다.

한조는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면서 근심 어린 눈으로 널 섹터 침공 뉴스를 시청했다. 그때 소지로 시마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후 용은 고향에 돌아와 두고 온 것을 되찾았다. 용이 없는 동안 호랑이는 굴로 들어가 시골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용은 적을 파악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들었다.”

한조는 14년 넘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음성이 너무 또렷하고 가까워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혼자라는 것을 깨달은 그에게 실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소지로가 가르침을 베풀던 명예와 존중의 시대는 끝을 맺었지만, 아버지가 한조에게 남긴 유산은 그런 가르침뿐이었다.

물론 한조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생생한 기억이 문득 떠오른 것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책임이란 아랫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자가 권력을 쥔 채 공허한 말로 훈계하는 일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한조가 일족을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하시모토 일족이 소지로를 암살한 이후, 진실을 은폐하던 장막이 걷히며 일족의 활동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쟁 가문, 당국, 오버워치의 위협.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호한 이유는, 그 또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소지로가 가르침을 베풀던 명예와 존중의 시대는 끝을 맺었지만, 아버지가 한조에게 남긴 유산은 그런 가르침뿐이었다. 시마다 일족 장로들은 그 가르침의 결과를 원했지만, 한조는 준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황에 압도되어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한조는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몇 세대에 걸쳐 존재하다 소지로가 완성해낸 지위는 몰락해버렸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해온 한조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던 단 한 사람인 동생을 죽이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쳤다. 한조는 겐지가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덧없는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 도쿄로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제자리를 찾아갈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었다.

도심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도쿄 외곽에 아직 거대한 널 섹터 함선이 머물러 있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거리에는 망가진 차량이 즐비했고, 배낭과 가방을 지닌 시민들은 그 사이를 도보로 이동하며 계속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절망적으로 머리 위를 확인하면서.

혼돈 속에서 한조는 행렬의 반대편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널 섹터가 필연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 많은 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포화에 갇혔고,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다.

멀리에서 경찰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공습 경보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대피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정을 찾도록 보호해야 하지 않나? 한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검은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아홉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일부는 오니 가면을 쓰고 있었다. 보도를 전세라도 낸 듯, 보행자에게 길을 비키라고 하고 있었다. 하시모토 일족이었다.

한조는 셔터가 내려진 책방의 어두운 출입구로 돌아가 하시모토 무리를 관찰했다. 옷가지와 음식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걷던 한 노인이 그들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백을 떨어뜨렸다.

“잘 좀 보고 다녀, 노인네.” 무리 중 상투머리를 한 사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노인은 황급히 떨어뜨린 물건을 잡으려 했지만 일족 사내들은 노인의 백을 멀리 차버리며 야유했다. 한조는 이를 짝 물었다. 하시모토 일족은 시민들을 돌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기생충들이었다.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아버지? 한조가 생각했다. 하시모토 일족이 불량한 폭력배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고작 이런 놈들 때문에 불렀을 리는 없었다.

상투 사내의 날카로운 명령에 무리는 이동했다. 시간만 있었다면 더 많은 피난민들을 괴롭혔을 테니, 분명 무언가 급한 일이 있을 터였다. 한조는 다수로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에서, 널 섹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하시모토 요새로 소집된 게 아닌가 추측했다. 무리를 따라가면 호랑이 굴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몰랐다.

동정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돌아보던 한조는 멀찍이 떨어져 하시모토 무리를 따라갔다.

몇 분 후, 사내들은 한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한조는 아홉 명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야 밖에서 몸을 숙였다. 속으로 60초를 센 한조는 숨은 곳에서 나와 무리의 뒤를 따라갔다.

골목은 황량했다. 벽을 따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니 수준 낮은 놈들에게 딱 어울리는 곳이긴 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간 거지? 한조는 활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움직이는 존재나 수상한 물체를 찾던 그는 어느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 상투머리 사내가 쓰레기통 뒤에서 걸어 나오자 다른 하시모토 일족도 칼과 총을 꺼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걱정 마. 우리가 도와주지.”

한조의 눈에는 다섯 명뿐이었다. 깨진 유리를 밟는 소리로 미루어보아 나머지 넷은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포위된 것이다.

한조는 활에 화살을 메긴 후 상투머리에게 조준했다.

상투머리가 휘파람을 불었다. “이 친구 좀 봐! 활로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고?”

한조는 대장을 향해 미간을 찡그렸다. “싸움이라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조는 빠르고 자연스럽게 화살을 발사했다. 피잉! 화살은 상투 튼 사내의 머리 위를 지나갔고, 사내는 크게 웃었다. “잘도 쏘네!”

한조는 상투 사내 뒤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웃고 있던 사내가 뒤를 돌아보더니 조용해졌다. 잘린 상투가 화살로 벽에 박혀 있던 것이다.

한조는 침착하게 활에 화살을 하나 더 메겼다. “경고였다. 머리가 훨씬 낫군.”

상투머리는 잘린 머리가 눈을 찌르자 입김으로 날려버리고는 씩씩했다. “뭘 보고만 있어, 머저리들아! 죽여!”

앞에 있던 세 명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한조는 빠르게 화살을 발사해 두 명을 처리했지만, 다시 한 발을 쏘기도 전에 세 번째 상대가 덤벼들었다. 한조는 활을 들어올려 간신히 손잡이 부분으로 칼을 막아냈다. 칼끝이 왼쪽 뺨을 긁고 지나갔다. 한조는 공격자의 가슴팍을 발로 밀쳐낸 다음 활을 크게 휘둘렀다. 상대는 크게 허우적대며 콘크리트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조는 손등으로 볼에 스며 나온 피를 닦았다. 아슬아슬했군. 실력이 녹슬었어.

힘을 더 많이 끌어내려는지 두 검이 지직대며 번쩍였지만, 에너지장이 불안정 해진 걸 보니 뭔가 잘못된 듯했다.

한조는 사분원을 그리며 뒤로 이동해 뒤에 있던 하시모토 일족도 시야에 들어오도록 했다. 나머지 네 명은 형형색색의 오니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투머리와 뿔마니들은 권총을 꺼내 한조를 겨누었다.

총알이 날아왔지만 금속에 튕겨 나왔다. 한조가 몸을 돌려 쓰레기통 두 개 사이로 피했던 것이다. 쓰레기통 너머로 몸을 살짝 내밀어 화살을 조준하던 중, 왼쪽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팔과 옆구리로 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한조는 신음했고, 활을 든 팔이 내려갔다.

“좋았어!” 상투머리가 말했다. 손에 진 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활 이리 던져. 양손 올리고 나와. 대화로 해결하지.” 뿔마니들은 히죽거렸다.

엄폐물 뒤에서는 단 하나의 적도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다. 한조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맞은편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쓰레기통이 쓰러지며 골목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심하긴.” 상투머리가 말했다.

쓰레기통에 꽂힌 음파 화살이 고주파 파동을 일으켰고, 한조는 골목에 있던 모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침착하게 화살을 조준한 한조는 훈련을 통해 익힌 감각과 본능대로 여러 화살을 폭풍처럼 발사했다. 화살은 벽과 쓰레기통에 맞고 예각으로 튕겨나갔다. 하시모토 무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했는데, 그중 두 명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몇 발은 명중한 것이다.

한조는 어깨 상태를 확인했다. 관통상이라 총알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출혈이 상당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한조는 빠르게 숨을 몇 번 내쉬며 정신을 차렸다.

“이럴 시간 없어. 장검으로 해치워!” 상투머리가 소리쳤다.

한조는 한숨을 내쉬고 활을 들어올렸다.

갑자기 양옆에 있던 쓰레기통이 끌리는 소리를 내며 치워졌고, 한조는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다. 흑과 백 오니 가면을 쓴 하시모토 일족 두 명이 타치를 겨누는 채 좌우에서 좁혀들었다. 한조는 미소를 지었지만, 두 검에 은은한 푸른 기운이 빛나자 표정이 바뀌었다. 자신의 폭풍활로 고유한 능력을 쓸 때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을 더 많이 끌어내려는지 두 검이 지직대며 번쩍였지만, 에너지장이 불안정해진 걸 보니 뭔가 잘못된 듯했다. 유일하게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시마다 일족의 검술을 흉내 내려고 한 듯 보였는데, 익숙해 보이지는 않았다.

흑색 가면을 쓴 자가 공격했다. 검깨나 쓰는 녀석이었다. 한조는 어설피게 활로 검을 튕겨내는 동안, 백색 가면을 쓴 자가 그의 오른팔을 잡았다. 한조는 팔을 잡은 손을 확 당겨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시야에 섬광이 춤을 추었고, 한조는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흰 가면은 한조와 검을 모두 놓친 뒤 쓰러져 기절했다. 한조는 기절한 적을 발로 차 치운 다음 검은 가면을 바라보았다. 적색 오니 가면을 쓴 적이 그새 합류해 있었다.

한조는 활을 뽑아 화살 몇 발을 쏘았지만, 출혈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기 시작했다. 적들은 전기가 튀며 지직거리는 검을 휘둘러 화살을 쳐낸 뒤 접근해왔다. 나머지 하시모토 일족도 대열을 정비하여 한조를 둘러쌌다.

꽤나 잘 조직되어 있긴 하군, 한조는 인정했다. 게다가 한조가 가진 화살보다 적의 수가 더 많았다. *팅! 텡! 티잉!* 흑색 가면이 쓰러졌고, 한조는 등 뒤에서 화살을 집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한조는 허공을 헤집던 손을 짝 쥐어 주먹으로 가까이 있던 공격자를 후려쳤다. 적색 가면이 부서졌고, 적은 바닥에 쓰러졌다.

적을 기다리는 데 지친 한조는 점점 절박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시모토 무리 속으로 뛰어 들었다.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한 생사가 걸린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조는 아버지처럼 하시모토 일족에 당할 생각이 없었다. 놈들이 기뻐하는 상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다.

좁은 전장에서 한조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먹을 날리고, 활을 휘두르고, 내달리고, 회피하는 춤. 적을 상대하며 바닥에 떨어진 화살 몇 개를 회수할 수는 있었지만, 한조는 지쳐가고 있었다. 하시모토 일족은 훈련 수준이나 기술이 형편없었지만 머릿수는 많았다. 요새에서 가까운 도쿄에서는 그랬다. 거기에 맞서는 것은 한조 하나뿐이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인 데다 화살도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 압도당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이 한 발을 제대로 써야겠군.

한조는 폭풍활에 화살을 메겨 발사했고, 강렬한 에너지는 용 두 마리가 얽힌 형상으로 소용돌이치며 나아갔다. 에너지가 골목을 따라 일직선으로 발산되자 적들은 불품없이 쓰러졌다.

상투머리와 톨마니 몇 명만이 한조의 회심의 일격에서 살아남았다. 살짝 휘청거리던 한조는 활을 짝 거머쥔 채 남은 적들에게 맞섰다. 골목을 적신 피는 상당수 한조가 흘린 피였다.

남은 하시모토 일족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하며 당황했고, 톨마니 중 하나가 상투머리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놈들의 대장은 한조와 그의 활을 사납게 찌려보며 중얼거렸다. “시마다.”

한조는 방어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휘청거리다 넘어졌고, 의식은 오락가락했다.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진 암살자의 활을 집어 들더니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상투머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의기양양했다. “넌 대체 누구야?”

“아무도 아니다.” 한조가 눈에 침을 뱉자 상투 사내는 몸을 크게 움츠렸다. 팔로 얼굴을 닦아낸 그는 활로 한조의 오른뺨을 후려쳤다. 한조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맞은 뺨은 얼얼했다.

“데려가.” 상투머리가 말했다.

하시모토 일족들은 한조의 팔을 등 뒤로 돌려 케이블 타이를 불필요하게 세게 당기며 손목을 묶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태였던 한조는 쓰레기통 뒤에 그려진 낙서를 바라보며 피처럼 붉은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보려고 애썼다. 누군가가 지우려다 실패한 낙서였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한조는 미소 지은 후 정신을 잃었다.

한조는 작은 콘크리트 감방 안에서 거친 판 위에 누워 있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호박색 조명이 일렁였다. 인간형 로봇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움닉의 금속 몸체는 감옥의 강화문과 똑같이 은색과 청회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크게 하품을 하는 한조의 턱에서 똑 소리가 났다. 부어오른 턱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던 그는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깨에 입은 총상은 깨끗이 치료되어 붕대가 감겨 있는 상태였다. 하시모토 일족이 자신을 치료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한조는 전투 중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처와 멍을 발견하고는 이곳에 자신을 옮길 때 놈들이 조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시모토 요새로 데려온 건가? 왜 골목에서 죽게 두거나 직접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은 거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은 거지?” 한조가 움닉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한조는 재차 물었다. “여긴 어디냐?” 도쿄가 맞긴 한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경비 로봇은 자세를 고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물 좀 주겠나?” 한조가 물었다.

그제서야 경비 로봇이 반응했다. “진심이나?”

“목이 말라서.” 한조가 말했다.

움닉이 문에 한 번 노크하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로봇이 나가면서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렸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라 시간 감각은 없었지만, 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를 다시 들은 것은 몇 시간이나 지난 후 같았다. 정신이 다시 든 한조는 다시 한번 싸움을 위해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눈은 뜨지 않았다. 방문객 하나가 슬리퍼를 조용히 끌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이구나.” 사내가 말했다.

과거에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에 한조의 눈이 커졌고, 벌떡 일어난 그는 사내를 빤히 쳐다봤다. 감옥 건너편에는 토시로 야마가미가 서 있었다. 기억 속 모습보다 늙고 살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노쇠하거나 유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뛰어난 검 제작자였던 토시로는 쇠를 달구는 법,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질 때까지 몇 번이나 두드리는 법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만들어진 검은 굉장히 얇았지만 담금질하지 않은 강철보다 훨씬 강하고 치명적이었다. 토시로의 기술이 완성되기 전이었음에도 말이다.

한조가 떠난 이후, 일족 장로들은 카네자카에서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뜯어먹은 뒤 시마다의 유산을 산산이 부숴 버렸고, 그나마 남은 것도 곧 오버워치가 말끔히 없애 버렸다.

토시로 야마가미의 인상은 그가 만든 유명한 검과 비슷했다. 최근 몇 년간의 압박에도 더욱 강해진 것이다. “토시로 선생님.” 한조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살아남고 있지.” 토시로가 답했다.

한조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까 보았던 검은 시마다 무기의 한낱 모조품이 아니었다. 과거 시마다 검 제작자로 일했던 토시로는 이제 하시모토 일족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기생충 같은 하시모토 일족을 위해 검을 버리면서요?” 한조가 물었다.

토시로의 두 눈에 과거의 열정이 불타오르며 표정과 어조가 바뀌었다. “자네가 없던 시절 내 가족이 어렵게 선택해야 했던 길을 이해해 주리라곤 기대도 하지 않네.”

한조는 얼굴을 찡그렸다. 여태까지 토시로와 그의 아내 아사, 그리고 딸 키리코가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조가 떠난 이후, 일족 장로들은 카네자카에서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뜯어먹은 뒤 시마다의 유산을 산산이 부숴 버렸고, 그나마 남은 것도 곧 오버워치가 말끔히 없애 버렸다. 한조는 토시로와 아사가 원하는 인생을 택했으리라 생각했었지만, 본인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안일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연히 모두의 삶은 바뀌었을 것이다. 매년 한조가 동생을 기리려 시마다 성을 찾았을 때, 고향은 하시모토 일족의 손에 더럽혀져 있었다. 오버워치가 사라진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검이 무더졌더군요.” 한조가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토시로의 눈에 어려 있던 열정이 사라졌다. “의지와는 상관 없이... 좋지 않은 재료로 많이 만들어야 했으니.”

한조는 생각에 잠겼다. 세대가 같았던 토시로와 아버지는 행동거지와 말투가 너무도 비슷해 그 둘을 가족으로 오인하던 이들도 있었다. 권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둘은 서로를 존중했다.

토시로는 한조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저의가 있다는 듯 늘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조는 토시로가 정말 좋지 않은 재료를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시모토 일족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조작하게 만든 것인지 가늠해 보았다.

그럼에도 한조는 건방진 왕자처럼 야마가미 일족을 하인 취급했다. 지금, 자신보다 훨씬 명예로운 가족을 둔 토시로를 마주하자 도리어 자신이 하인이 된 듯 움츠러들었다.

토시로는 늘 자신의 검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니, 후자였다면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었다.

“야마가미 선생님의 검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쓰이다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조가 말했다. 장인의 무기가 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수준 낮은 푼마니들 손에 들린다는 것도 두말할 것 없이 비극이었다.

토시로의 눈썹이 올라갔다. “인생은 흑백이 아닌 법. 영웅은 누구고, 악인은 또 누구지? 무엇이 되느냐는 모두 자신이 선택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네.” 회색 머리 노인은 단조되지 않은 강철을 대하듯 한조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난 8년간 하시모토 일족을 위해 검을 만들면서 내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지. 자네가 선택한 길은 어떻게 되었는데?”

“검보다도 날카로운 말씀이군요, 선생님.”

“아둔한 이들에게는 아둔한 무기가 어울리지.” 토시로는 고개를 숙였다. “내 무기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완전히 길들일 수 있어.” 토시로는 한동안 한조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만든 검이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명예도 갖춘 이에게 쓰이기를 바랄 뿐이네.”

한조는 수치심을 느꼈다. 한조, 겐지, 그리고 키리코에게 검술을 훈련시켰던 아사 야마가미는 토시로의 아내였다. 아사는 시마다 일족 최고의 닌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한조의 어머니 루미코 시마다가 가출한 후, 아사는 한조와 겐지 형제에게 어머니와도 같았다.

그럼에도 한조는 건방진 왕자처럼 야마가미 일족을 하인 취급했다. 지금, 자신보다 훨씬 명예로운 가족을 둔 토시로를 마주하자 도리어 자신이 하인이 된 듯 움츠러들었다. 한조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야마가미 일족은 여기에 남아 무거운 짐을 견뎌 왔다. 한조가 짊어졌어야 하는 짐을. 그 뒤로 한조도 변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둘 사이의 곤란한 상황에서 한조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저는...” 한조는 무겁게 짐을 삼켰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사 선생님은 잘 계시죠?”

“아직도 카네자카에서 질서를 유지 중이지.”

천방지축이었던 시마다 형제에게 검술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훈련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한조는 하시모토 일족이 아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시모토 일족이 아사의 관리를 받을 것이라 짐작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토시로의 눈에서는 약간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한조는 토시로가 과거에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미소 짓게 해주던 시절을 회상했다. 둘만 알아들을 만한 우스갯소리로.

아사는 무기를 들지 않고 상대를 무장 해제하는 방법이 검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거나 미소를 짓는 것으로 상대를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바로 그런 기술로 아사와 토시로가 하시모토 일족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이 한조의 아버지 아래서 일할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조, 만나서 반가웠다. 하지만 자네가 뭘 찾고 있건, 여기 돌아온 건 실수야.”

“제 실수는 사로잡힌 것이죠.” 한조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토시로는 웃음을 참았다. “하시모토 일족 장로들이 네 폭풍활을 알아보더구나.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무기라고.” 토시로는 애원하듯이 거칠고 굳은살이 박힌 손바닥을 내보였다. “놈들은 자네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나를 보냈다네. 이제 시마다의 후계자를 손에 넣었으니, 자네를 처형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킬 게야. 일석이조 아니겠나.”

“찾는 게 시마다의 후계자라면 여기 없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마다 일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명맥을 유지할 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 가문에 남은 건 거짓, 실패, 악행뿐입니다.”

토시로는 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을 찾아냈을 때처럼 혀를 찼다.

“자네 부친은 사업가셨지. 분명 범죄자였어. 하지만 일족이, 그리고 가족이 최대한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호랑이보다 더한 것까지 물리치셨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유지를 받드는 일일 수 있다.”

둘은 얼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조는 마치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지만, 희미한 가능성도 포착할 수 있었다.

토시로는 한조의 마음을 읽은 듯이 말했다. “자네를 보니 옛 시절이 떠오르는구나. 자네와 내 딸에게서 항상 읽을 수 있던 것도 보이고. 우리가 만들려던 미래 말일세.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꿈도 살아 있는 거겠지.”

토시로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용의 아들이 너무 망가져 버려, 차라리 죽이는 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전하마. 시마다 일족의 자취를, 자네가 하시모토 일족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지워 버렸다고도 말아야.”

한조는 한 대 맞은 듯이 숨이 턱 막혔다.

“뻔한 말이 진실인지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법.” 토시로는 등 뒤에 있는 문을 주먹으로 툭 쳤다.

명예란 행동에 깃드는 것이다. 겐지가 한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였다. 형에겐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자네가 돌아온 걸 봤다면 소지로도 자랑스러워했을 게야.” 토시로가 말했다.

**한조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요.”**

**노인은 애석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단다, 한조.”**

한조는 토시로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토시로도 똑같이 예를 갖췄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탈출하면 키리코를 찾아가 주게. 편지도 더 쓰고, 같이 있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라고 있다고... 하시모토 일족을 저지하기 위해 애써주는 게 자랑스럽다고도 말일세.”

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돌아온 걸 봤다면 소지로도 자랑스러워했을 게야.” 토시로가 말했다.

한조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요.”

노인은 애석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단다, 한조.”

문이 열렸고, 토시로는 하시모토 경비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경비병들이 토시로를 데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한조는 검 제작자가 하시모토 무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일족의 규칙 아래 남기로 선택을 내림으로써, 토시로는 스스로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었다.

문이 닫히고 한조는 바닥에 정좌했다. 생각할 일이 많았다.

문이 다시 열릴 때는 한가로이 안부를 나눌 일은 없으리란 걸 한조는 알았다. 하시모토 일족 두 명이 들어왔다. 카타나를 뽑아든 놈과, 익숙한 상투머리. 상투머리는 케이블 타이를 들고 있었다.

“돌아서.” 상투머리가 소리질렀다. “손 등 뒤에 두고.”

“죽일 거면 그냥 여기서 죽여.” 한조가 말했다.

“두목님들이 네가 죽는 모습을 보시겠다고 한다. 철수하기 전에.”

한조가 투덜댔다. “그러시든가.” 한조는 돌아서서 양손을 뒤로 내밀었다. 상투머리가 거칠게 손을 묶을 때 느껴지는 어깨의 통증은 무시하면서. 한조가 젊고 거침없고 거만했던 시절에는 눈을 가린 채 손을 뒤로 묶고도 동생 겐지를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사실을 두 하시모토 일족은 몰랐다. 한조의 얘기를 들은 아사 선생님은 그걸 훈련의 기회로 이용하셨다.

그런데도 두 멍청이들은 한조의 눈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골목에서의 싸움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한조는 활이나 손을 쓰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탈출하나? 도망치는 게 지긋지긋했던 한조는 하시모토 장로들을 직접 보고 싶었다. 사람들은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안전한 요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였다.

아사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바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한조의 뇌리를 스쳤다. ‘공격할 때와 공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해. 때로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그 가르침을 따라 한조는 기다렸다. 두 멍청이가 시설의 미로 같은 복도를 나아가는 것을 순순히 따라간 것이다.

뒤통수가 간질거리는 것을 보니 감시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한조는 걸음을 늦추며 주위를 살피다가 복도 끝에서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야 당연히 있을 수 있었지만 누군가, 무언가 더 있는 게 느껴졌다.

“계속 가.” 상투머리가 말했다.

한조는 차분하게 호흡하며 계속 걸었다. 두 하시모토 일족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한조를 태웠다. 상투 사내가 접이식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3층 버튼을 누른 후 크랭크를 돌리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두 개 층을 지나 흔들리며 정지하자, 상투머리는 다시 크랭크를 돌려 문을 열었다. 널찍한 회의실이 펼쳐졌다. 방 저편에는 다섯 명의 하시모토 장로들이 높은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경비병 네 명이 지키고 있었다. 상투머리가 한조를 밀었고, 한조는 장로들 쪽으로 걸어나갔다.

한조는 다섯 명 중 누가 하시모토의 지도자일까 생각했다. 가운데 앉은 백발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조 시마다.”

“아버지가 남긴 성은 더 이상 쓰지 않아.” 한조가 말했다.

맨 오른쪽에 앉아 있던 졸린 눈의 사내가 손가락으로 한조를 가리켰다. “그건 네 생각이지. 이름은 버릴 수 없다. 한 번 용은 영원한 용이다.”

“죽기 전까지는 말이지.” 맨 왼쪽에 앉아 있던 화장을 진하게 한 여인이 던진 농담에 모두가 깔깔거렸다.

“네놈은 우리 숙적의 마지막 생존자다.” 중앙에 있던 여인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마다 일족을 멸족할 것이다.” 한조는 공중에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드론 카메라를 목격했다.

탁자 위에 놓인 폭풍활이 보였다. 화살통은 비어 있었다.

“누가 먼저 나를 상대할 건가?” 한조가 말했다.

장로들은 빙글빙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씩 버리면 그만인걸.”

금속 섬광이 번쩍이더니 쿠나이가 한조에게 날아들어 손목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잘랐다.

상투머리의 총부리가 등을 누르자 한조는 긴장했다. 밝은 조명이 한조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카메라가 점점 다가왔고, 윙윙대는 드론 렌즈가 그를 바라보았다.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닌, 아버지처럼 암살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기 위한 수작이었다.

장전 손잡이가 뒤로 당겨지며 소리를 냈다. 한조가 움직여야 할 순간이었다.

“죽여.”

상투머리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조명이 깜빡였다. 다시금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푸른빛 영혼이 회의실 안으로 날아들어와 놀란 장로들을 지나 한조에게 접근했다. 영혼은 한조와 상투머리 주위를 돌았다.

한조는 혼란을 틈타 몸을 돌린 후 총상을 입지 않은 어깨로 상투머리에게 돌진했다. 놈이 놓친 권총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 섬광이 번쩍이더니 쿠나이가 한조에게 날아들어 손목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잘랐다. 한조는 쿠나이가 날아든 위쪽을 쳐다봤다. 천장 패널이 열려 있었다. 순식간에 사람 형체가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가볍게 착지했다. 백색과 적색이 섞인 무녀복에 빨간 운동화를 신은 여인은 붉은 복면으로 얼굴의 아래쪽을 가리고 있었다. 누군가 조심하라고 외치자 장로들은 허둥지둥 책상 뒤로 몸을 피했다.

한조는 상투머리의 주먹을 쳐내며 몸을 돌려 높이 차버렸다. 상투머리는 분노해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주먹을 내질렀다. 하지만 한조는 이미 높이 날아오른 뒤였다. 앞으로 공중제비를 돈 그는 다리 사이 상투머리의 머리를 끼워 비틀었다. 상투머리와 함께 착지한 한조는 상대를 굴리고, 뒤집고, 회전시키다가 등 쪽으로 세계 내리찍었다. 놈은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선 한조는 새 손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우 귀와 머리띠에 멋들어지게 한자가 쓰인 것을 보니, 여우 공격을 퍼부은 건 그 여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여인의 차림새를 한가로이 감상할 시간이 없었다. 하시모토 옴닉이 번쩍이는 푸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카타나를 휘두르며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에너지로 강화된 무기에 닿으면 큰 부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한조는 공격을 피했다.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우 닌자가 앞으로 질주해 쿠나이를 교차하며 옴닉의 칼을 막아냈다. 뒤이은 발차기에 로봇은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날아갔지만, 이내 자세를 잡고 여인과 칼싸움을 시작했다.

여우 닌자는 번개처럼 빠르고 민첩해 움닉은 수세에 몰렸고, 이내 닌자는 재빨리 움직여 작은 검으로 상대를 찔렀다. 더 이상 검을 들 수 없게 된 움닉은 도망쳤다.

한조와 여우 닌자는 말 한마디 없이 남은 하시모토 일족을 몰아붙였다. 한조는 부상당한 쪽 팔을 길게 뻗어 풀었다. 닌자와 일링이는 여우 혼령과 나란히 싸우고 있자니 아버지가 들려주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지직거리는 검을 든 한 무리의 하시모토 일족이 또 들이닥쳤다. 한조와 가면 쓴 낯선 손님은 마치 평생을 함께 싸웠던 사이처럼 한 몸이 되어 싸웠다. 둘은 계속 회의실 중앙에서 원을 그리며 돌았고, 여우 닌자가 쿠나이로 적의 무장을 해제하면 한조가 맨손 격투로 마무리하는 식이었다. 여인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으로 보아 한계에 다다른 듯 했고, 이는 한조도 마찬가지였다. 부상당한 어깨에 새로 타박상을 입자 총상이 다시 찢어져, 팔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마지막 하시모토 일족이 쓰러지자 여우 닌자는 한조에게 몸을 돌렸다. “서둘러! 놈들을 놓쳐선 안 돼.”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래전 알고 있었던 소녀가 떠올랐다.

한조는 회의실 앞쪽에 열려 있는 문을 발견했다. 어느새 장로들은 사라져 있었다. 무기를 찾아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이던 한조는 쓰러진 하시모토 톨마니에게서 자신의 활과 화살통을 되찾았다. 누군가 활을 쓰려고 했는지 화살통이 채워져 있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창밖을 내다본 한조는 발걸음을 멈추었고, 여우 닌자는 놀라 숨을 들이마셨다.

널 섹터 지휘선이 검은 알갱이를 퍼부으며 도쿄 타워 위에 떠 있던 것이다. 낙하기는 지옥의 우박처럼 도시를 박살내고 있었다. 하늘은 각종 병기의 섬광으로 번쩍였지만, 도쿄 경찰과 자위대는 머릿수로 밀려서 계속 후퇴하는 중이었다. 도쿄는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다.

둘이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오는 동안 덤벼드는 적은 없었다. 하시모토의 장갑 수송대가 퇴각하고 있었다.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한조가 말했다.

여인이 한조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여우 닌자는 심호흡했다. “우린 여기 있어야 해.”

주위 거리는 전쟁 로봇으로 가득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다. 한조는 공기 중에 만연한 냄새에 놀랐다. 오존, 재, 유황 냄새. 파멸과 죽음의 냄새.

한조는 방송을 통해 널 섹터가 파리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긴 했지만, 널 섹터의 파괴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놈들의 공격은 현실이었고,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한조는 도쿄의 화재에서 피어 오른 검은 연기와 운무를 근처 카네자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널 섹터가 도쿄를 초토화하고 나면, 놈들의 드론 함선이 도쿄 주위의 중소 구역으로 퍼져 도시에서 도망친 난민의 퇴로를 끊을 것이었다. 외진 자치구의 작은 마을들은 대부분 방어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도쿄가 파괴된 후 널 섹터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나머지 지역도 도미노처럼 혼돈에 휩싸일 게 뻔했다.

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우 닌자가 쿠나이를 뽑자 그는 활에 화살을 메겼다. 둘은 함께 머리 위를 날아

“버릇 없는 녀석.” 한조가 말했다.

키리코가 웃었다.
“시마다 씨도 여전히 밍상이시네요.
알아서 살아남게 둘걸.”

가던 전쟁 로봇을 공격해 추락시켰다. 당하기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도망쳤다.

“저 안으로 가십시오.” 한조는 민간인들에게 하시모토 요새를 가리켰다. 요새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난리가 끝날 때까지 숨을 공간은 충분할 겁니다.” 한조는 최소한 하시모토 일족이 기지를 탈환하러 돌아오기 전까지는 요새가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둘이 주위 블록에 보이는 적을 전부 처치한 후, 한조는 가면을 쓴 조력자를 바라봤다.

“네가 누군지 알아.” 한조가 말했다.

“내가 당신 시마다를 아는 것만큼. 아닐지도 모르고.”

한조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다. 칼을 거둔 여우 닌자는 스스로 복면을 턱 아래로 내려 보였다. 얼굴을 확인한 한조의 마음에 수많은 추억이 솟아났다. 자신과 겐지를 잘 따르던 여자아이. 겐지가 최고 점수를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오락기 옆에 앉아있던 아이. 시마다 성 발코니에서 함께 폭죽놀이를 구경하던 기억.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겐지와 한조에게 저녁 식사를 갖다 주던 기억. 한조에게 내민 그릇에 많이도 쌓여 있던 떡은 소녀가 한조를 얼마나 아끼는지 말해 주었다.

“버릇 없는 녀석.” 한조가 말했다.

키리코가 웃었다. “시마다 씨도 여전히 밍상이시네요. 알아서 살아남게 둘걸.”

“그러긴 했잖아?”

어렸을 때 둘이 친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없었다. 한조에게는 할 일이 있고, 준비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과 일족을 잊고 살았던 한조는 키리코의 가시 돋친 말에서조차 향수에 젖었다. 한조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향수.

지난날 한조는 키리코를 가신 부부의 귀찮은 딸 정도로 냉담하게 대하긴 했지만, 보살핌이 필요할 때면 키리코는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다.

“그래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주의를 끌어 줬어.” 한조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고맙다, 키리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바보 아저씨.” 키리코는 엄지와 검지를 붙을락 말락 들여 보였다. “한 요 정도?” 한조는 요새를 향해 눈을 돌렸다. “나 때문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오게 될 줄은 나조차도 몰랐으니까.”

“맞아요. 시마다 씨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키리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구나.”

“하시모토 일족이 수년 전,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가끔 일족의 허락을 받고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최근 몇 개월간은 연락이 없으셨죠. 더 늦기 전에 널 섹터 침공을 틈타서 아버지를 구할 계획이었어요. 여우신이 시마다 씨에게로 인도할 줄은 몰랐네요.”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키리코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아버지는 여기 안 계신가 봐요.”

“계신다. 내가 만났어.” 한조가 말했다.

“언제요?”

“여기 갇혔을 때. 선생님이 네게 말을 전해주라 하셨다... 하시모토 일족을 저지해 줘서 자랑스럽다고.”

키리코는 잠시 하시모토 수송대가 혼란 속 모습을 감추기 전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키리코의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명예를 지키며 책임을 다해왔다. 토시로는 자유를 희생당한 채 일하며 가족의 자유를 보장받았고, 집에 하시모토 일족에 대한 정보도 보냈다. 아사는 카네자카를 관리하면서 하시모토 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키리코는 하시모토 일족의 압제에 맞서 싸우면서, 일족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들의 희생 앞에 한조는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명예와 비겁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한조는 비겁함 쪽으로 기울었으면서도 옳지만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변명으로 명예를 이용하고 있었다.

키리코는 미간을 찡그리며 연기가 자욱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버워치가 올라요?” 키리코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조를 마주봤다.

파리에서 겐지가 오버워치에 복귀한 사실을 알았던 한조는 키리코의 표정을 보고는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전에 한조와 겐지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알고 있을까? 키리코가 겐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건 명백했지만, 한조는 아직 겐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키리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시모토 일족이 카네자카를 보호할 리가 없으니까, 거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치만 이번에는...” 키리코는 널 섹터 함선을 바라봤다. “제가 어딜 왔는지 아시면 엄마가 노발대발 할 거예요. 그래도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우리 호흠 꽤 잘 맞지 않았어요?”

한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력,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는 쓸 만했어.”

한조에게 소지로 시마다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승리한 용이 옛 둥지로 다시 들어오자, 둥지는 차디차게 비어 있었다. 호랑이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다. 원하던 것이 보물이나 신하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용은 선행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의미를 찾은 것이다.

원하던 것이 보물이나 신하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용은 선행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의미를 찾은 것이다.

한조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카네자카로 돌아갈까.”

키리코는 놀랐다. “같이 갈 거예요?”

“여우신께서 너를 내게 이끌어 주셨구나, 키리코. 감사한 일이야.” 한조가 말했다. 용이 내가 찾던 목표로 나를 인도해 준 것도.

종이 한 장을 꺼내 든 키리코가 한조의 가슴에 들이밀었고, 한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내려다봤다.

“회복의 부적이에요.” 키리코가 말했다. “제 방식이죠.”

한조는 감정이나 감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지만, 그도 이제 변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키리코에게 목숨을 빚진 데다 무수히 많이 신세를 졌고, 키리코의 부모님은 지금의 한조가 존재하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키리코의 가족은 수 세기 동안 시마다 일족을 섬겨왔으니, 이제 한조가 그들, 그들의 사람들을 섬길 차례였다. 이것이 한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려던 교훈이었다. 한조에게는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조와 키리코가 지나간 거리에는 널 섹터 전쟁 로봇의 잔해만이 남았다. 느리지만 확실히, 둘은 집으로 향했다.